

‘월-화-수-목, 이보다 더 막강할 수는 없다’

새 월화 <미세스 캡> - 패션도, 뷰티도 다 내려놓은 김희애, 오직 연기로 승부



김희애의 4년만의 지상파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미세스 캡>(극본 황주하, 연출 유인식)이 8월 3일(월) 9%, 4일(화) 10.2%의 시청률로 산뜻하게 출발했다(닐슨코리아/수도권). 이는 동시간대 1위와 근소한 차이의 2위이며, 화제 속에 종영된 전작 <상류사회>의 첫방 시청률 7.7%와 비교해볼 때 고무적인 수치이다.

데뷔 34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연기에 도전한 김희애는 지금까지의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시원하게 벗어던졌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패션, 뷰티 워너비도 포기했다. 서울시경 강력1계 팀장 최영진으로 완벽 변신한 김희애는 청바지에 혈령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질끈 동여맨 채, 화장기 없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범인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또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우는 딸 앞에만 서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미안함에 죄인이 되는 모성 연기는 이 시대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잘 대변하며 공감지수를 높였다. 김희애의 연기 변신에 대해 시청자들은 “역시 김희애”라면서 호평을 쏟아냈다.

7월 29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유인식 PD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 경찰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슈퍼우먼처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 뭔가를 포기하고 선택해야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엄마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희애의 명품 액션과 모성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미세스 캡>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새 수목 <용팔이> - 주원, 김태희의 만남만으로도 시청률 보증수표

<용팔이>. 60, 70년대 흘러간 옛 영화 제목에서나 본 듯한 이 촌스러운 이름은 ‘용한 돌팔이 의사’의 줄인 말로, 주원이 맡은 외과 의사 김태현을 일컫는 말이다. 김태현은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여동생 때문에 사채 빚을 지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비밀 불법 왕진을 다니는 막장 인생을 살아간다.

대한민국 최고 미녀 김태희와 시청률 보증수표 주원의 만남만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 새 수목드라마 <용팔이>(극본 장혁린, 연출 오진석)가 8월 5일(수) 첫 방송됐다. 이 두 사람의 첫 공연에 대한 기대는 방송에 앞서 7월 30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 현장에 뻑뻑이 들어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여실히 증명이 됐다.

제작발표회장에서 나온 주원, 조현재, 정웅인 등의 남자 배우들은 “상대역으로 김태희를 적극 추천했다. 볼수록 예쁘다”(주원), “김태희 캐스팅 소식에 출연을 결심했다. 처음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정웅인), “두 번째 만나게 돼 기쁘다. 김태희라 행복하다. 내가 복이 많은 것 같다”(조현재)며 한결 같이 여신 미모 김태희와 공연하는 것에 영광을 표했다.

김태희는 이런 극찬에 초연한 채 “데뷔 때부터 준비 없이 주연을 맡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이번 작품이 김태희의 배우 인생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김태희는 한신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졌지만 회사를 노리는 이복 오빠의 계략으로 3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여진을 연기한다. 그런 그녀가 ‘용팔이’ 주원을 만나 깨어나게 되면서(3회에!) 처절하고 치밀한 복수극과 아름답고 처연한 멜로를 펼쳐 나간다.

SNS와 TV의 결합 - 조희수 배틀 월드컵 <18초> 동영상 60여개에 200만 이상의 조회수 기록



SNS와 TV를 결합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파일럿 프로그램 <18초>(연출 소형석, 황성준, 이큰별)는 연예인들이 각자 자유롭게 만든 18초 길이 동영상을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에 올리고 12시간 동안의 조회수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제목이 뜻하는 <18초>는 범람하는 영상 콘텐츠 속, 모바일 유저들이 영상클립을 감상하는 평균 시간이라고 한다.

7월 30일(목), 이경규와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김나영, 김종민, 봉만대, 소유, 월급도둑, 조쉬, 찬열, 표창원 등 8인의 참가자들이 분당 300시간이 넘게 업로드 되는 영상의 홍수 속에서 18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는 게임에 도전했다. 한 개 동영상의 길이는 18초로 제한됐지만, 12시간 동안 참가자가 제작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수는 제한이 없었다.

김나영은 패션과 뷰티를 소재로 한 동영상을, 김종민은 바보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로 과학실험 동영상을 올렸다. 건강미인 소유는 여름나기 비법을, 찬열은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소재로 한 동영상을 올렸다.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줬고, 직장인 패러디 동영상으로 유명한 월급도둑은 <미생>의 실사판 동영상을 올리는 등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로 최다 조회수를 노렸다.

동영상 수의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연속극 형태로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쓰는 참가자도 있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용자들이 범인을 맞히는 게임을 연속 추리극처럼 펼쳐 나갔고, 봉만대 감독은 이용자 멘션이 다음 동영상의 대본이 돼, 연결하면 하나의 영화가 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1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올린 동영상 60여개는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18초>는 녹화당일 페이스북 TV프로그램 페이지 순위에서 6위에 오르기도 해, 방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과연 어떤 영상이 SNS 이용자들의 취향을 저격했을까? TV를 떠난 인터넷 세대를 아우르는 실험적 프로그램 <18초>는 8월 11일(화), 18일(화) 밤 11시에 2회에 걸쳐 방송된다.

확 바뀐 <힐링캠프>, 이제는 시청자가 주인공이다! 500인의 MC와 게스트가 직접 소통



2011년 7월 방송을 시작한 <힐링캠프>(연출 곽승영)가 만 4년 만에 김제동 빼고 다 바뀌었다. 김제동도 메인 MC가 아니라 500인 집단 MC체제의 한 명일 뿐, 나머지 499인의 MC는 일반인들이다.

7월 27일(월) 확 바뀐 모습으로 선보인 <힐링캠프>는 500인의 MC들이 개편 후 첫 게스트 황정민에게 직접 질문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MC가 질문하고 게스트가 대답하는 걸 듣기만 하다가, 직접 MC가 되어 게스트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전문 MC가 아닌 지라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어색해보이기도 했지만, MC의 지위를 부여받은 일반인들은 곧 그 자리를 즐기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보조 MC를 자처한 김제동은 일반인 MC들에게 “시청률이 안 나오면 여러분 탓이다. 책임도 500분의 1이다”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며 관객 한 명 한 명이 MC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일반인들이 MC가 되자 시청자 눈높이의 ‘신선한 질문’이 쏟아졌다. ‘방송’을 잘 아는, 혹은 게스트가 동료 연예인임을 고려한 연예인 MC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일반인 MC들은 스스럼없이 던졌다. 한 MC는 영화 <신세계>에서 보였던 구수한 옥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황정민은 망설임 끝에 시원하게 옥을 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 한 가지, 김제동을 제외하고 일반인 MC들은 녹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날의 게스트가 누군지 모른다. 사전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돌발 질문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고, 게스트는 시청자들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서로의 힐링을 추구하는 새로워진 <힐링캠프>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9월 5일 방송) 축하 에세이

오늘도 악몽을 꾸며 <그것이>의 무게를 견디고 있을 후배들에게

제작본부 교양국 최상재 부장



비단 SBS의 교양 PD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업 PD들이, 아니 PD 지망생이나 시청자들도 한 번쯤은 자신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하 <그것이>)를 제작하는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수사관, 또는 명탐정이 되어서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상상! 헤안을 지닌 평론가, 또는 작가가 되어 시대의 흐름을 명쾌하게 포착하는 상상! 정의로운 검사, 또는 추상 같은 판관이 되어 악인을 단죄하고 정의를 세우는 상상! 그러나 이런 가슴 벅찬 상상은 <그것이>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쉽게 전말이 이해되는 사건은 애초에 <그것이>와 만날 이유도 없지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헷갈리는 복잡한 사건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년, 수십 년 간 엮어지고 뒤얽린 사건들만 <그것이> PD의 손에 쥐어진다. 제보자를 제외하면 우리 편이건 저쪽 편이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수백의 호위무사를 둔 사이버 교주, 방송국 PD를 옆집 강아지쯤으로 여기는 족벌사

학의 주인, 돈 맛을 제대로 안 의사, 변호사... 나라에 대한 충성과 조폭의 의리를 분간 못하는 장군들이나 바람 불면 갈대밭에 몸 숙이는 재주가 탁월한 관료들... 이런 자들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그것이>는 잡아내야 한다.

애걸을 하든 협박을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리건, 그것도 아니면 운 좋게 우연히 만나든...

하지만 내게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그것이>의 무게였다. 내가 <그것이> 제작에 참여했던 때는 2000년대 초 <그것이>가 400회를 넘기고 500회로 질주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10년 가까이 시사교발 프로그램의 진수를 보이며 명성을 쌓아가던 <그것이>에 내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담이 늘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내 꿈은 늘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템이 엮어지고 방송은 핑크 나는 것으로 전개됐고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던 기억이 새롭다. 가족이 협박을 받건 말건, 소송에 걸려 취재 중에 법원을 들락거리건 말건, 머릿속에는 ‘끝까지 간다, 가다가 안 되면 죽는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것이>가 1000회를 맞는다.

SBS에서의 지난 23년 세월을 반으로 접으면 <그것이> 500회 특집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만들던 때다. 2004년에 무사히 <그것이>를 탈출한다고 희희낙락하다가 지금은 퇴직한 신언훈 선배에게 불려가 500회 특집을 준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전의 모든 부담을 다 합친 만큼의 부담을 안고 심신을 쥐어짜며 프로그램을 만들던 기억이 새롭다(신 선배는 내가 왜 자기에게 쌀쌀하게 대하는지 아직도 잘 모를 것이다).

이제 내가 느꼈던 <그것이>의 무게가 두 배로 늘었다.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 아마 훨씬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묵묵히 1000회를 향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SBS 파워FM, 변함없는 라디오 채널 점유율 1위



SBS 파워FM(107.7MHz)이 7월에 실시된 청취율 조사에서 채널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 23.4%를 기록한 SBS 파워FM은 2위인 MBC AM(22.3%)을 제치고 지난 4월 조사에 이어 채널 1위 자리를 지켰다.

〈두시 탈출 켈투쇼〉는 이번 조사에서도 점유율 12.7%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다. 〈두시 탈출 켈투쇼〉 외에도 〈박소현의 러브게임〉, 〈호란의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 〈최화정의 파워타임〉,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등 파워FM의 6개 프로그램이 청취율 상위 20개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청취율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7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수도권인 만 13세~69세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SBS 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 ‘이달의 PD상’ 수상



〈SBS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연출 이광훈)가 7월 31일(금)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제 184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동성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삶을 정면으로 다룬 〈SBS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는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이끌어내 사회적 논의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 A&T 박춘배 · 아나운서팀 이윤아 제2대 몸짱왕



노사협력팀이 임직원들의 건강이 건강한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2회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SBS피트니스센터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별 뿐만 아니라 팀별 경쟁을 도입해 팀을 결성한 팀원들 간의 협력과 격려를 도모할 수 있었다.

총 54명의 개인과 5인조 4개 팀이 체지방률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경쟁을 벌인 결과, 개인 부문 1등(몸짱왕)은 영상편집팀 박춘배 사원(SBS A&T)과 아나운서팀 이윤아 사원이 차지했으며, 2등은 미래부 김준용 사원, 3등은 예능국 심성민 차장이 차지했다. 팀 부문 1등은 편집기술팀 이승재·이근형 차장대우, 원진희·장철·한광만 사원으로 이루어진 일편단식팀이, 2등은 목동 사옥 21층 재무팀 문경환 차장, 시설팀 박기동 차장대우, 전성태 사원, 노사협력팀 변영옥·김정목 사원으로 이루어진 투애니원팀이 차지했다. 개미허리상은 아나운서팀 이현경 차장대우, 보도운영팀 유남철 사원이 받았다.

신청자 54명 중 끝까지 완주한 43명은 평균 1.3kg씩 감량하였으며, 남자 몸짱왕인 박춘배 사원은 체중 12.3kg, 체지방률 5.8%, 허리둘레 10.8cm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수상자들은 뷔페 식사권과 SBS피트니스센터 무료 이용권 등의 상품을 받았다.

EPL부터 UEFA챔피언스리그까지 다 본다



SBS스포츠가 UEFA챔피언스리그, UEFA유로파리그 3년 중계권을 확보하고, 8월 12일(수) UEFA슈퍼컵부터 시작해, 19일(수) UEFA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본격적으로 중계한다.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관하는 클럽축구대회 UEFA챔피언스리그는 유럽 최상위 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들의 대회’이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로, 박지성이 아시아 최초로 결승 무대에서 뛰었다. 지난 시즌에는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16강까지 진출한 바 있어 올해에도 더욱 성장한 손흥민의 플레이가 기대된다. UEFA유로파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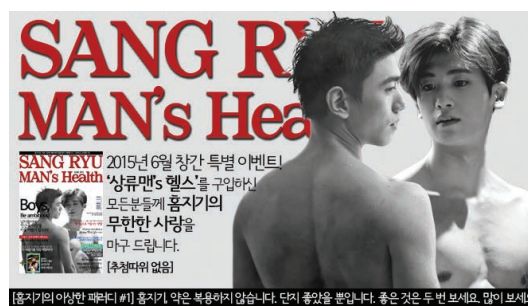
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홍정호 콤비를 볼 수 있다.

한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 잉글리시FA컵을 단독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SBS스포츠는 UEFA챔피언스리그 중계권까지 확보하며 최고의 해외축구 콘텐츠 패키지를 완성했다.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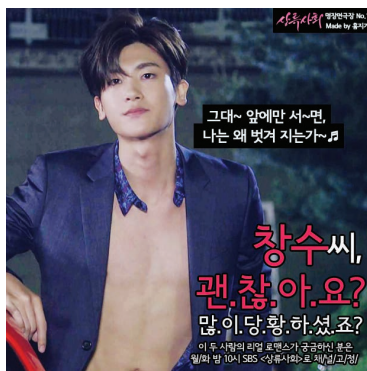
〈상류사회〉

제작진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특화 콘텐츠 인기 상승



실시간으로 TV를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리뷰를 확인한 후에 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통이 점차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작진의 참여도 즉,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본방 제작 외에도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전용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모바일 최적화를 고민하는 제작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로 모바일 이용자 관심 고조



지난 7월 28일(화), SBS월화드라마 〈상류사회〉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상류사회〉가 방송되는 기간 동안, TV에서 〈상류사회〉 방송이 끝나면 또 다른 〈상류사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펼쳐졌다.

배꼽을 움켜질 듯한 패러디나 또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는 스토리 등 드라마의 포인트를 잘 살린 콘텐츠들이 디지털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드라마

의 관심을 고조시켜 고스란히 흥행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류사회〉 한정판 EP 이하 제작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작진은 촬영 스케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에도 방송 이외의 부가 콘텐츠 생산을 위해 주연 배우 섭외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제작발표회 온라인 생중계 사전 홍보를 위한 배우 박형식의 인터뷰 영상은 SNS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주연 배우 유이의 포토 밀착 취재, 남자 주연 배우 사위 장면 포토 촬영 등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콘텐츠 생산에 힘을 기울여 공동 협의를 진행하였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평가를 받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콘텐츠보다 조회수가 약 6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개하는 콘텐츠 대부분이 포털 사이트 대문을 장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여, 디지털 특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 SBS 콘텐츠허브 방송서비스팀

우리 프로그램은요~

향긋하고 소박한 시골밥상을 차려 드립니다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오전 05:05-06:00

한때 나는 생수 같은 여자였다. 강한 캐릭터를 연출하는 연예인과 달리 아나운서는 언제나 담담하게 빛나는 조연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시청자와 호흡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까지도 유명한 인기 아나운서가 아닌 걸 보면 내 나름의 원칙을 꽤 지키고 있다는 멍청한 자부심(?)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운서와 PD 겸업을 시도하는 "1인 DJ 시스템"에 차출되어 혼자 복치고 장구 치는 멀티녀가 되었다. 낯설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꽤 매력적이었다. 왜? 대한민국 시니어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몸에 좋은 시골 밥을 지어 드립니다. 톡 쏘는 콜라 맛도, 칼질하는 스테이크도 아니지만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향긋하고 소박한 시골밥상이다.

SBS 라디오 개국 이래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유일한 장수 방송. 여 기엔 시니어들의 향수와 좌절, 열정과 희망도 같이 버무린다.

〈청춘 초대석〉에는 한 가수의 노래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현장리포트〉에선 시니어계의 이슈를 던진다, 〈청취자 사연〉에는 노 부부들의 애환이 전달되고, 〈청춘열전〉에는 3세대가 함께 듣는 노래 들이 나온다. 또한 〈시니어 건강〉에선 의사 선생님들과의 대담을 통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 드립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는 그 길로 가야한다. 당신도 나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며 조금씩 한발이라도 앞으로... 하다 보니 어느덧 20년. 나는 곁절이에서 묵은지가 되었다. 삶의 깊은 맛은 여기에 있다.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엔딩 멘트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다. 외로우니까 노년이고,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아직도 청춘이다.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유영미 부장

공연 · 전시

20주년 맞아 업그레이드된 감동 선사 뮤지컬 〈명성황후〉



일시: 7월 28일(화)~9월 10일(목)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995년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막을 올렸던 〈명성황후〉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명성황후 시해 120주기를 맞는 해라 의미가 남다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김소현(우리에게 〈오마베〉 주안이 엄마로 잘 알려진)과 신영숙이 조선의 마지막 국모인 명성황후를 맡아, 연기력과 가창력에서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보여준다. 김소현은 〈명성황후〉 출연이 처음이나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엘리자벳〉 등에서 왕비 역을 맡은 바 있다. 1999년 〈명성황후〉에서 양상블을 맡아 뮤지컬에 데뷔한 신영숙은 16년 만에 이 뮤지컬의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명성황후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궁궐의 시위별감 홍계훈은 뮤지컬배우 김준현, 박송권, 가수 테이가 나눠 맡았다.

탄탄한 구성과 연출력으로 국내 뮤지컬 최초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무대에 진출하기도 했던 〈명성황후〉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2011년 서울 공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작품은 기존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본, 음악, 무대, 영상 등 전반에 걸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또 다른 20년을 향하는 작업을 마쳤다. 달라진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러브스토리라 디지털 영상을 추가했고, 현대적인 영상들도 추가했다.

기본 줄거리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1막 '무과시험' 장면을 활기로 가득 채우는 병사들의 군무와 2막 시해 당한 민비와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한 발자국씩 앞으로 걸어 나오며 부르는 넘버 '백성이여 일어나라'의 감동만큼은 여전하다. 20년을 한결같이 관객들을 전율시키는 〈명성황후〉만의 전매특허이다.

SBS 문화재단

11월 1일까지 '올해의 작가상 2015' 서울전 개최



SBS문화재단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8월 4일(화)부터 11월 1일(일)까지 '올해의 작가상 2015'전을 서울관(소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그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제도이다.

지난 3월 '올해의 작가상 2015' 후보로 김기라, 나현, 오인환, 하태범 작가가 선정되었다. 후보 작가들은 각 작가별로 나뉜 전시공간에 최근작을 포함한 새로운 작품을 전시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6일(화) 최종 1인이 '2015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mca.go.kr/>)와 '올해의 작가상' 공식 홈페이지(<http://koreaartistpriz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조사

· 축하합니다

제작본부 예능국 예능3CP소속 이양화 차장대우 특남(7월 22일)

· 애도합니다

편성본부 홍보국 김강석 홍보국장 부친상(7월 24일)

제작본부 교양국 교양1CP소속 최민철 사원 부친상(7월 25일)

기획본부 경영기획국 광고팀 유지현 사원 조모상(7월 27일)

기획본부 경영기획국 기획팀 유우정 차장대우 조모상(7월 28일)

제작본부 예능국 예능2CP소속 조문주 사원 조부상(8월 2일)

경영지원본부 HR팀부 휴직 박유선 차장대우 부친상(8월 4일)

경영지원본부 HR팀 허정희 사원 부친상(8월 4일)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